

전남

그린타운 조성·자전거 도로 건설·수변지역 재생 등

목포 '녹색도시'로 거듭난다

목포시가 '친환경 녹색도시'로 거듭난다. 목포시는 올해 도시계획 행정을 '친환경 녹색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수변지역 재생사업 ▲해변 녹화사업 ▲그린-타운(綠村) 조성 ▲자전거 도로 개설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활력 증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양 일반산단 조성과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도 올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중 진입도로 실시설계 및 보상 등 공사를 진행하고 한국도지주택공사와 산업단지 개발 MOU도 체결할 예정이다.

향해권 시대' 신산업 허브로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는 올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로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간은 편도 4차로 가운데 1개 차로를 축소해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분리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검문소~근화회마타운간 도로개설 공사에 들어간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총 연장 3.2km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오는 2011년말 완공 예정이다.



여수 농기센터, 안개꽃 신제품 비교 현장평가회

여수시 농기센터는 최근 안개꽃 주산단지인 돌산읍 신복리에서 재배농가와 종묘업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개꽃 신제품 비교시험회 현장평가를 가졌다. 돌산지역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양성 기후 등을 기반으로 최고의 안개꽃을 생산, 화훼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여수시 제공>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

수산물품질관리 원도지원

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 원도지원(지원장 이근승)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원도지원은 오는 12일까지 관할지역인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등을 대상으로 해양경찰서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대량산 조성 등 서남권거점 도시기반구축은 물론 대양~북항 간 도로, 검문소~근화 회마타운 간 도로, 대양산단 진입도로 조성 등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중점단속 품목은 명절 성수기에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 빈번할 수 있는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등 어류와 마린미역, 마른 새우, 바지락, 굴, 횡감등 활어 등이다.

이근승 원도지원장은 "수산물 취급업소는 원산지 표시를, 소비자는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해야한다"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부취재본부=정은기자 ejchung@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다채

순천만·신안 증도 등 전남 4곳... 7일까지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국내 최초로 탐사 습지에 지정된 순천만을 포함한 전남지역 4개 시·군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2일부터 7일까지 환경부와 순천시 등 지자체와 함께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밝혔다. 시는 버스 이용자를 위해 버스정보

기, 염전 길·염습지 걷기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진행된다. 보성군은 4일 벌교읍 대포~장암리 일원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 1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풍어와 습지보전을 염원하는 제사(갯제)를 올리는 등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무안군은 7일까지 '습지주간'으로 정하고 2일 생태갯벌센터에서 '무안 갯벌사랑' 행사를 열었다. /김형호기자 khh@

안정된 버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은 정류소 안내기와 버스정보시스템 홈페이지(bis.sc.go.kr), 휴대폰을 통해 버스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받으며, 출퇴근 시간이나 약속시간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주민 반응 결과에 따라 올해도 9억 원의 들여 읍·면 농촌지역의 버스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으로 정보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정류소 안내기가 설치되는 모든 정류장에 LED 조명등을 설치해 야간 서비스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gja@

순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호응'

버스 도착정보 제공·LED 조명등 설치

순천시가 지난해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 설치한 시내버스 정보시스템이 대중교통 활성화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밝혔다. 시는 버스 이용자를 위해 버스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주요 정류장과 순천만 안내음성 등 53개소에 버스 도착에 정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버스 정보 안내기와 LED조명 등을 설치했다. /김형호기자 khh@

진도군 약용작물 생산단지 만든다

90ha 규모 조성... 쌀 수급 안정 기여도

진도군이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용작물 생산단지'를 조성한다. 2일 진도군에 따르면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쌀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천수답과 수리 불안전답 등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낮은 지역을 '약용작물 생산단지'로 조성한다.

가 어려운 논을 대상으로 벼 대신 약용작물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하는 농민과 작목반 등을 대상으로 이달 초순까지 신청을 받아 90ha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대규모 한약재 도매업체와 생산조합 등을 농업인에게 안내,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도군 농산과 관계자는 "매년 쌀 문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벼농사 대신에 약용 작물로 작목을 전환, 단위 면적당 소득을 높여 농가 소득증대와 쌀 수급 안정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부취재본부=박현경기자 hypark@

군은 3억원의 예산을 확보, 벼농사

새얼굴

"SOC 확충·일자리 창출에 최선"

최 강수 곡성군 부군수



"군 전체면적의 72%를 차지하는 산림과 관련한 산업을 발굴하고 친환경 농업을 내실있는 산업으로 육성해 부가 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지난 1일 취임한 최강수(58) 곡성군 부군수는 "부족한 SOC(사회간접자본)를 확충, 생활문화제원과 관련된 녹색마을 여러 기업을 유치해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곡성 출신인 최 부군수는 목

포대 행정학과 졸업했으며 지난 1973년 곡성군 목사동면에서 공직을 시작해 도청이전 사업본부 재정담당, 관광개발 기획담당 서울사무소장, 도지사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이성희(52)씨와 사이에 2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경기자 kjjkim@

전남 겨울철 관광객 유치

아이디어 공모... 5월까지

전남도는 겨울철 관광 bus기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나선다.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관광 bus기인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비교 우위 자원을 섬·갯벌·습지 등을 활용한 관광, 문화, 레저스포츠 대회 등을 중심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제안서 접수는 5월 말까지 전남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와 우편, 팩스 등으로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6월 중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김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주)국민법률경매. It features a large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various properties for sale across different regions (Jeonnam, Jeolla, Chungcheong, Gyeonggi, Seoul). The table includes details such as location, area, price, and other specifications. The header includes the company name and contact information.